진안군 '청정환경 지키기' 빛났다

이항로 군수,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

민선6기 이항로 진안군수의 핵심 공약사업인 청정환경 지키기가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 진안군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유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04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14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7개 분야 145개 사업을 신청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항로 군수는 2007년 부귀면장으로 부임하던 시절부터 쓰레기 3NO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부귀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2014년 민선6기 진안군수 당선과 동시에 '주민주도 쓰레기 3NO 운동 전지역 확대'와 '진안의 천혜 자연환경 지키기'의 두 가지 환경 분야 공약사업을 내걸고 진안고원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진안에서는 주민 편의대로 영농폐비닐이나 농약병을 밭에서 태우고, 농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태우거나, 아무 곳에 버리고, 땅속에 묻기 일쑤였다.

그래서 주민주도 쓰레기 3NO운동 사업 초기에는 군민들의 거센 반발과 많은 민원에 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진안군의 공격적인 홍보와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본격 시작한지 2년 반 만에 '청정 환경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군민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와 영농폐기물을 태우거나, 생활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묻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특히 전북, 충남권 150만명의 식수원인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논 농업 친환경 우렁이 농법시행', '농기계 폐오일 무료교환 사업',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청정 환경 보전 프로젝트를 군정 전 분야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설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황정수 무주군수, 안성시장 찾아 장보기 실시

무주군은 25일 안성면 장날을 맞아 덕유산장터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과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무주지역본부, 시장상인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며 온누리 상품권 이용과 물가안정 관련 캠페인을 펼쳤다.

황정수 군수는 상인들은 만나 격려하며 "좋은 물건, 친절한 마음, 착한 가격이 변치 않아야 손님들이 찾아온다"며 "안성장을 통해 안성, 나아가 무주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자"고 전했다.

이날 안성면 덕유산장터에는 공동판매장(53.9㎡)이 문을 열어 안성의 명물 "천마"를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공동판매장은 2015년 골목형시장 공모에 선정돼 조성됐으며 앞으로 덕유산장터의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로컬플러스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조직위 설철면 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종석) 직원들은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무주 상설시장을 찾아 장보기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직위가 위치한 설철면 내 사회복지시설(솔로몬 지역아동센터)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 과일, 휴지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침체 및 AI 발생,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기부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액비유통 협의체 구성

진안군은 25일 고질적인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활용방안을 위해 경종 농가와 양돈 농가를 연계한 액비유통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유통협의체 회의에서 효율적인 분뇨처리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일제접종과 방역사업장 관리카드제 도입, 분뇨처리 실태 점검·지도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액비 저장조 활용과 퇴·액비 활용계획수립, 시비처방서 발급 및 농가교육에 힘쓰고, 양돈농가에서는 고품질 액비생산과 유통비용 부담, 농가 경영체는 액비살포 수요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 농장에 액비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악취를 없애고, 분뇨를 액비화하여 고품질의 비료로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악취 없는 축산업과,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가야고분군 분포조사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장수가야 고총고분 229기 확인

장수군은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과 학술용역계약을 체결, 진행 중인 장수군 가야고분군 분포조사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4일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한영희 장수군 부군수와 각실과 소장 및 읍면장과 장수가야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전주대학교 송화섭위원장과 군산대학교 곽장근박물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간보고회 진행을 맡은 유철 전주문화유산원장은 '기존 자체조사를 통해 208기가 확인됐고, 올해는 동촌리·삼봉리 고분 일원에서 고분 229기가 확인됐다고 조사성과를 밝혔다.

조사를 직접 참여한 전상학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사과정에서 기존 조사된 고분이 훼손된 곳이 몇 군데 파악됐고 , 이는 무관심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혀 아쉬움을 더했다.

군은 이번조사에서 고분 수십기수가 확인됐는데 고분의 기수뿐만 아니라 고분별 높이·규모·위치 등을 정확히 표기하고 이 고분의 보존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임정택 장수가야 세계유산등재 추진위 부위원장외 주민들은 "우리나라 문헌상 나타난 6가야 외에 장수가야의 중요성 및 분포조사의 정의, 세계 유산적 가치"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유철 원장과 곽장근 관장은 "장수 6가야는 삼국유사인 야사에 나온 가야사이며 중국문헌자료에는 20여개의 가야계소국이 명시돼 있고, 철의왕국 가야의 성장 동력인 제철유적이 70여개소가 자리하고 있어 세계 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효자가 따로 없네~'

완주군 생활민원기동반, 도우미 역할 '톡톡'

완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반, 일명 '8272 기동반'이 주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고 가려운 곳은 긁어주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생활민원기동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적인 민원발생 가능성을 파악, 세대 방문을 통해 현장 무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첫 발을 내딛은 생활민원기동반은 독거 노인의 손과 발이 돼주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삶의 고민들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도우미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2957건에 달하는 민원을 현장 활동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친자식 못지 않다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해결한 민원을 보면 전기분야 2310건을 비롯해 출입문 보수(문고리 부착) 113건, 수도꼭지 등 각종 밸브 교체 165건, 화장실 변기 부속품류 교체 10건, 훼손·오염된 국기 및 군기 교체 206건 등에 이른다.

또한 독거노인 479가구, 저소득계층 332가구에 대해 민원처리활동을 펼치는 한편, 253개소의 경로당이나 모정을 찾아 시설보수 및 기타 점검을 해줬다.

생활민원기동반은 매달 주기적인 출장운영계획서를 읍·면에 통보하면, 해당 읍·면에서는 마을 안내자(이장, 부녀회장 등)에게 기동반의 방문일자를 전달하고, 마을 안내자는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해주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경찰, 부남면 하은의 집 방문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은 지난 24일 청렴동아리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남면 하은의 집을 방문해 이들을 위문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위문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찰관의 봉급 끝전 모으기로 모은 위문품으로 화장지, 세제, 라면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생활안전교통과장 외 직원 5명은 한마음요양원을 방문해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2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하는 등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이에 나영민 서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사회적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운주 장선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완주군이 올해 운주면 장선리 중촌마을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지경계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군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 지구(166필지, 259천㎡), 화산면 리복지구(306필지, 253천㎡),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8천㎡)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특히 완주군은 2017년 사업으로 운주면 장선리 중촌마을 일원(734필지, 349천㎡)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25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운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등을 안내했다.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은 불합리한 경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교육지원청, 교육계획설명회 개최

전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애)은 최근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 공유의 기회를 갖기 위해 '2017년 진안교육계획 설명회'를 실시했다.

진안지역 학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총 1백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전북교원아카펠라음악연구회의 흥겹고 아름다운 중창으로 시작, 2016년도 학교 교육활동 실적 영상 시청, 2017학년도 진안교육계획 추진 방향 안내, 교육장과 공감토크활동 등 90여분 동안 이루어졌다.

김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꿈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기본에 충실한 창의력 신장 교육과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는 배우는 재미와 기쁨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보람을 주며 학부모님들께는 만족을 주는 교육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자와 함께 하는 '교육장과의 공감 토크활동'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질문은 진안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교육특구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농어촌 교육특구의 추진 방향, 마을교육과정 운영 내용,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치 여부, 최근 진안지역 학생 수 변동 추이 등이 그것.

김 교육장은 답변을 통해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해 미래 진안 지역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 여부는 고스란히 학교에 달려 있다"면서 올 한해동안 지역에서 답을 찾으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동계 중국어캠프 수료식

완주군과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가 주관한 동계 중국어캠프가 25일 우석대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마쳤다.

이날 수료식에서 삼례여중 김우빈 학생이 완주군수상을 수상하였고, 봉서초 박성민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적 및 캠프 생활우수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운영되었으며, 관내 학생 60명과 중국 자매결연도시 회안시 학생 30명을 초청해 합숙형 중국어교육 형태로 이뤄졌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 번암면, 마을 순회 간담회

장수군 번암면(면장 장종현)은 새해를 맞아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순회간담회'를 실시, 마을별 주요현안사업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마련된 이번 순회 간담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내 주요현안사업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 기간 ▲농로포장 ▲용배수로 준설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 ▲농업기반시설 및 교통사구 위험지구 안전대책 ▲마을하수도 설치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마을회관 내 운동기구 비치 등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건의됐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